

보도자료

2010년 4월 7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디지털방송정책과 유대선 과장(☎750-2330)
디지털방송정책과 김순철 사무관(☎750-2338) kimscl@kcc.go.kr

“아날로그 TV방송 2012년 12월 31일 04시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7일(수)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을 2012년 12월 31일 04시로 의결하였다.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아날로그방송의 종료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아날로그 방송 종료 주체인 지상파 방송사의 의견 수렴 및 디지털방송활성화 실무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관계기관, 전문가, 학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우리나라 전역의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을 2012년 12월 31일 04시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에 따른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시청자 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등 시청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이 결정됨에 따라 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앞으로 TV공익광고,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 등과의 연계 홍보,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를 추진하여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방통위는 전국적인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앞서 전면적인 디지털방송 실시를 위한 기술테스트, 시청자만족도, 시청자지원 등의 파급효과를 사전 점검하기 위하여 경북 울진군, 전남 강진군, 충북 단양군에서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울진군은 금년 9월 1일, 강진군은 10월 6일, 단양군은 11월 3일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방송을 전면 실시한다.

※ 2011년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추진

또한 디지털TV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오는 5월부터는 가전사들과 협력하여 저렴한 디지털TV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마을공시청 시설 개선, 공동주택 수신환경 개선 사업 등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전환 콜센터 운영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